



카메라를 잊어주세요
사랑하는 아이의 얼굴은
두 눈에 담도록



주소록을 잊어주세요
사랑하는 친구들의
번호표는 잃 수 있도록



문자기능을 잊어주세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시
긴 연애편지를 쓰도록



기술은 언제나 사람에게 지고 맙니다

사람과 사람의 거리를 좁히는 것은 기술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것도 기술이 아닙니다
더 많이 기억하고 더 자주 손을 잡아주고,
더 따뜻하게 진심을 전하는 것도 기술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SK 텔레콤의 정보통신 기술은 그렇게 사람부터 생각합니다
사람을 위해서 사람부터 생각합니다

사람을 향합니다

봄을 가장 멋지게 입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지금 CJ홈쇼핑에선 봄 패션 코디가 한창!
CJ홈쇼핑에서만 만날 수 있는 송지오, 미성도로서 봄 신상품 제안

기증

같은 돈을 더 잘 쓰는 방법-
쇼핑의 지혜, CJ홈쇼핑
www.CJmall.com



끊임없이 경쟁에 시달리는 아들, 딸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누가 뭐래도 널 믿어

돈 많이 못 벌면 어때 네가 하고 싶은걸 해야지

지금 이대로도 네가 자랑스럽단다

괜찮아,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집에서 하는 만큼만 하면 직장에서도 잘 할 거야

새로 시작하면 되는 거야 넌 젊으니까

너희를 보기만 해도 힘이 난다

최선을 다 했으면 된 거야

우리 아들 얼굴이 제일 환하던걸?

잘 자라줘서 늘 고맙다

.....

마음에 힘이 되는 말 한마디가
아들, 딸들의 어깨에 자신감을 심어줍니다

소중한 사람들 오래 오래 건강하도록 - 교보생명

최저금리 연 4.86%!
내 집 마련의 꿈, 마음껏 펼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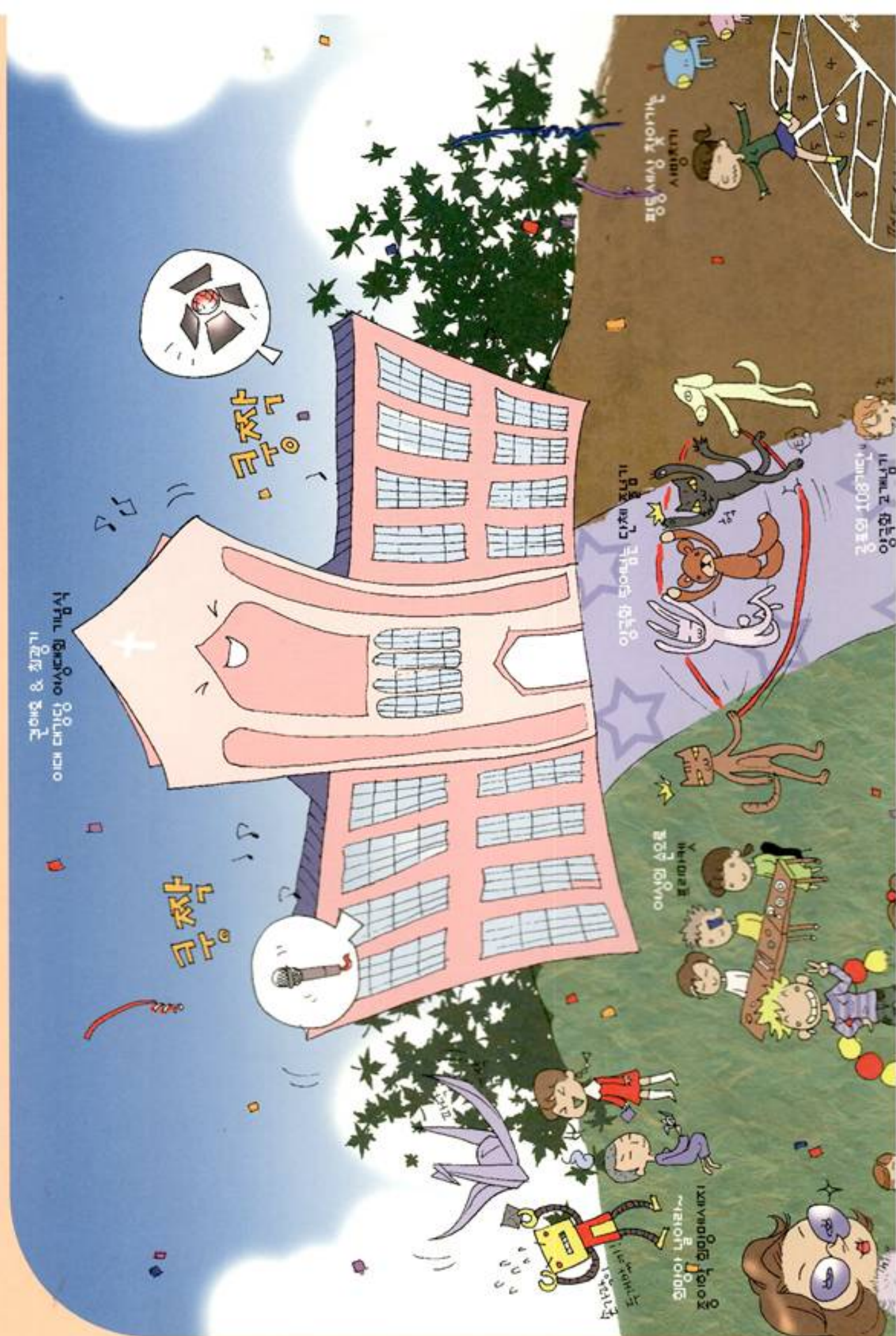
아파트파워론 II

우리은행 베스트고객 이상 0.2%우대, 자동이체 가입고객 0.1%우대,
인터넷 또는 텔레뱅킹 가입고객 0.1%우대, 우리카드 가입고객 0.1%우대 등
우리만의 폭넓은 금리 우대 혜택을 누리세요

다양한 금리 우대 제도의 **아파트 파워론 II**가 가족의 웃음을 찾아 드립니다

- 최저금리 연 4.86%까지 (2006. 2. 17 현재 COB연동대출 기준)
- 20세 미만 3자녀 이상 가정 0.5% 금리 우대
- 보험가입으로 대출한도 증액 (보험료 은행부담)
- 거치기간 최장 10년까지 가능

우리나라  우리은행
wooribank.com





안녕하세요!
학교 축제입니다!

현재의 사회 양극화 현상은
빈곤층의 절대 다수가 여성이 되어가는
빈곤의 여성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의 결과 발생하는
빈곤의 여성화 를 극복하는 것은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심각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과제이다.

양극화 넘어
더불어 함께!



여성일자리 · 확대!

현재 사회적 일자리는 주로 일용직과(전체 사회적 일자리의 50.4%), 임시직(23.9%)중심이며 월평균 임금소득이 64,6만원~88,8만원인 저임금 직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여성의 사회적 일자리 참여율이 높다 하더라도, 현재의 사회적 일자리는 빈곤 여성들의 소득 및 복리향상, 직업개발을 통한 고용확대 등을 위한 실질적 지원정책으로는 매우 미흡하다. 저소득 여성들의 실질적인 소득 확대를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과 고용조건이 보장된 관청은 여성일자리를 확대하여 빈곤 여성들의 고용의 질을 높여야 한다.

비정규직 차별 · 철폐!

현재 여성노동자의 약 70% 이상이 비정규직이다. 비정규 여성노동자의 증가로 인해 여성노동자중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2004년 41.5%에서 2005년 42%로 높아졌고, 여성 저임금노동자의 비중은 남성의 약 2.7배 수준이다. 또한 현재 남성임금 대비 여성의 임금의 비율은 62.9%의 수준으로(2005년), 이마저도 2001년 이후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비정규직 여성이 증가하고, 차별이 존재하는 한 여성의 빈곤문제는 극복될 수 없으므로, 2006년에는 비정규 노동자 차별철폐와 권리확보를 위한 법 개정,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법 개정 운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한부모 지원제도 · 확대!

전체가구 중 여성가장의 비율은 18.5%인데 비해 빈곤가구 중 여성 가장의 비율은 45.8%에 이르고 여성가장의 빈곤 위험율은 남성가구주에 비해 3배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여성 가구주 3명중 1명은 최저 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성 한부모들은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자녀양육 및 가사노동의 부담, 사회적 편견이라는 온갖 어려움을 혼자 극복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따라서 한부모를 위한 모부자복지법 개정, 기초생활보장법 등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성인지적 개혁을 통해 한 부모를 위한 경제적 · 정서적 지원제도를 확대하고 각 지역과 부문에서 여성 한부모의 요구를 조직화하는 운동이 필요하다.

한국여성대회

한국여성대회 Program

시민난장 (12:00~1:00) / 먼저 도착한 참가자들이 자유롭게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 안내센터

자료집 및 기념품 배부 등을 위한 안내데스크

• 양국화를 넘는 더불어 함께 여성 5종 경기

양국화 고개넘기! : 이화여대 대강당으로 연결되어 있는 계단을 활용하여 양국화 현상 알아보기

양국화를 넘는 단체 줄넘기!

양국화 해결에 힘! 보라는 부호놀이!

평등세상 찾아가는 사탕치기!

더불어 함께 제기차기!

★ 5종 경기를 관주하신 관객께서는 '여성의 날'을 축하하는 의미로 장미꽃과 스카프 기념품을 드립니다.

• 여성의 눈으로 세상을 보라~

희망아~ 날아라 : 종이학 띄우기 대회 개최

여성의 눈으로 세상을 보라~벤그라스 만들기

여성의 눈으로 철학 : 주석사진 찍기

만나서 반갑습니다 : 준비위원회 참가단체들의 환영메세지 전시

• 희망을 알리는 낮은 목소리

전국문해·성인기초교육협의회, 한국여성노동자회의, 전국가정관리사업회, 한부모네트워크, 여성인권지원센터 '종이학' 등 홍보부스 운영

• 여성을 위한 자궁경부암 무료검진센터 운영

행사당일, 100명을 대상으로 자궁경부암 무료검진 진행

식전축하행사 (1:00~2:00) / 사회 : 권해효 & 최광기

• '들꽃피는마을' / 난타

• 'Chapter2' / 합 공연

• '돼지꿈' (대전여민회 연극모임) / 무지개를 사세요

• '날개짓'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회원 자조모임) / 퍼포먼스

기념식 프로그램 (2:00~3:00)

• 38합창단

• 회원단체 참가소개 및 가수입장

• 대회사 : 여성연합 3인 공동대표

• 축사 : 한국여성대회를 축하하는 인사들의 영상

• 내빈 소개

• 시상식 : 올해의여성운동상 시상, 성평등 다짐돌 & 결집돌 발표

• 2006년 여성희망 : 참가자 전체 퍼포먼스

• 축하공연 : 가수 마야

• 폐회사

여성희망 걷기 Program

이동경로

- 이화여대 정문 → 신촌로타리 → 연세대정문 앞

복색한 참가자들의 자유로운 걷기대회 / 사회 : 최광기

몽물퍼 (단비&고양여성민우회) | 복색한 참가자들 도열

- 다함께 부르는 노래 : 믿음의 언덕, 함모아! 힘을 줘 / 불나비 / 바위처럼
- 특별성명서 발표 : 여성유권자 선언
- 함께하는 나누는 발언
- 정리



준비위원회

Member

98주기 3·8세계여성의날 기념 제22회

한국여성대회



- 일시 2006년 3월 5일(일), 낮 12시 ~ 4시까지
- 장소 이화여대 대강당
- 주관 한국여성단체연합 ·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 주최 3·8 세계여성의날 기념 제22회 한국여성대회 준비위원회

전국 시민사회 · 여성인권 · 문화단체 150개 단체가 함께합니다!

준비위원회

(도도하나의문화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강원여성회 경상권 광주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광주전남여대
 성대표자협의회 광주청남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네트워킹 기독교문화실천운동 기독교성당여성회 기록어인회 김해여성회 나와
 우리 내일을여는것여성 녹색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성매매여성인권지원센터 대구여성회 대전성매매여성인권
 지원상담소 노티나루 대전여인회 문화세상이표로피어 문화연대 미술인회의 민변여성복지위원회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불련터21 부산교육문화센터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
 체 새울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군산시민모임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매매피해여성센터 '한물지기' 성매매피해
 여성지원상담소 '살림' 수원여성회 안산햇살센터 안양여성회 양산여성회 여성문화예술기획 여성문화인권센터 여성사회
 교육원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여성환경연대 일민익산여성회 울산여성회 의정부여성회 이주여성인권센터 자립지지공동
 체 전국문화·성인기초교육협의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남여성농민회총연합 전북성매매여성인권지원센터 전북여대성
 대표자협의회 전북여성농민회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연구회 제주여인회 제주평화인권여성연대 주부아카데미협
 의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불교재가연대 참여연대 청년여성문화원 청소년을위한내일여성센터 초록정치연대
 충북여성민우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의친구들 포항여성회 한국건강연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서울, 인천, 광주, 마산합천, 부산, 전북, 부산, 안산, 대구) 한국여성민주화고령, 광주, 군포, 김포, 서울남
 부, 서울남서, 서울동북, 원주, 인천, 진주, 춘천)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연대(서울(강서양천), 광주, 대구, 부산, 울산,
 인천, 강화, 강릉, 광명, 성남, 수원, 시흥, 안양, 김해, 창원, 군산, 영광, 익산, 전주, 천안, 청주, 무천, 진해, 김포, 목포) 한국여
 성장애인연합(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센터, 경남지부, 광주지부, 대구지부, 부산지부, 전남지부, 충남
 지부, 충북지부, 농이안여성회, 시간장애인여성회) 한국여성학자협의회(대전, 기독교여성상담소) 한국장애인학부모회 전주지부
 한국청년대문제대책협의회 한국청년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여성별위원회 한부모네트워크 함께하는주부모임 환경운동
 연합 환경유지하는여성회 환경정의 홍사단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남윤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박영미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정현백

양극화 넘어 더불어 함께 희망을 만듭시다.

3·8 세계여성의 날을 축하하기 위해 전국에서 달려오신 여러분! 뜨거운 자매애로 사랑과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1908년 3월 8일 미국 뉴욕 루트거스 광장에서 참정권과 노동조합 결성의 권리를 온 몸으로 외쳤던 여성들의 무정정신을 함께 기억하면서, 2006년 우리의 과제인 사회양극화 해소, 더불어 함께 가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여성들은 일터와 가정에서 평등·평화·인권을 위해 열심히 투쟁해왔고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무한경쟁을 강요하는 세계자본의 시장지배력이 커지면서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그 가운데 여성들은 성차별적인 의식과 제도가 가중되어 양극화의 맨 밑바닥에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성노동자의 70% 이상이 저임금과 고용불안정에 시달리는 비정규직으로 전락했습니다. 또한 이혼·사별·배우자 가출 등의 이유로 전체 가구의 19.5%까지 늘어난 여성 가구주들은 1/3 이상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절대 빈곤층이며, 돌봄 노동의 부담과 사회적 편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빈곤층의 절대 다수가 여성으로 채워지는 '빈곤의 여성화'라는, 아프고 암울한 현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성들은 혹독한 겨울을 이기고 희망의 봄을 만들어갈 수 있는 열정과 힘을 갖고 있습니다. 가부장제의 상징인 호주제 장벽을 철폐하였고,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를 처벌하는 법을 제정하였고, 보육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이미 겨울 속에서 봄을 만들어 온 우리 여성들은 '빈곤의 여성화'와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고 통합적이고 지속가능한 평등·복지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2006년 우리는 먼저,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여 여성들이 보다 많은 고용기회와 소득을 통해 빈곤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여성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보육·학령기아동보호·장기간병 등의 돌봄 노동을 사회서비스분야 고용창출로 연계하도록 할 것입니다.

둘째,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를 포함한 비정규노동자 차별철폐를 위한 법·제도 개선, 비정규 노동자의 사회보험 적용률 개선, 직업능력개발기회 확대, 기간제·파견제 노동자의 대량해고 방지 등을 통해 비정규 여성노동자들의 권리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한부모 여성의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위한 모부자복지법 개정, 최저생계비 인상 및 주거·의료급여 적용대상 확대, 여성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여성농민의 건강과 육아지원, 여성노인의 일자리 확대 및 노인성질환 예방체계 구축, 성매매 및 가정 폭력 피해 생존자 자활대책 수립 등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성인지적 개혁을 통해 빈곤의 여성화를 방지해 나갈 것입니다.

긴 겨울을 이겨내고 생동하는 봄을 맞이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지혜와 힘을 모아 '빈곤의 여성화'와 '사회 양극화'를 넘어 평등과 평화의 세상을 향해 희망의 전진을 시작합시다! 우리가 희망입니다!

2006년 3월 5일
제 98회 세계여성의 날 기념 22회 한국여성대회에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남윤순, 박영미, 정현백

대중캠페인 | 서울지역 기념주간 캠페인

38기념주간 서울지역 프로그램(을지로입구 지하철역 / 종로일대에서 진행될 예정)

3/2(목)	3/3(금)	3/5(일)	3/6(월)	3/7(화)	3/8(수)
① 서울여성의전화 - 을지로입구역	② 평화를만드는 여성회 - 을지로입구역	제22회 한국여성대회 - 이화여대 대강당	③ 한국여성장애인 연합 - 을지로입구역	④ 한국성폭력상담소 - 을지로입구역	⑤ 정신대문제대책 협의회 수요시위 - 일대사관 ⑥ 서울YMCA성평등 실현대책위 - 종로

⑦ 한국여성민우회 나나나 온라인 캠페인 - 3/8 온라인에서 진행

* 캠페인 일정은 관련단체의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① "그녀가 집안에서 하는 백만가지 일" - 서울여성의 전화 (3/2, 오후 2시)
* 문 의 : 서울여성의 전화 (02-2272-2161, 이화영 사무국장)
- ② "일상에서의 평화 - 0319" 캠페인 -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3/3, 오후 2시)
* 문 의 :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02-929-4847, 김현희 국장)
- ③ "여성장애인의 빈곤퇴치를 위한 문화마당" - 한국여성장애인연합 (3/6, 오후 2시)
* 문 의 : 한국여성장애인연합 (02-3675-9635, 이희정 활동가)
- ④ "성폭력, 연쇄성폭력 격파작전 I - 2차 피해를 소멸하라!" - 한국성폭력상담소 (3/7, 오후 2시)
* 문 의 : 한국성폭력상담소 (02-338-2890, 정하경에 기획국장)
- ⑤ 3·8세계여성의날 기념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699차 정기수요시위
-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3/8, 12시, 일본대사관 앞)
* 문 의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02-365-4016, 강주혜 국장)
- ⑥ "서울YMCA 여성참정권을 요구하는 여성시민사회단체 연대집회"
- 서울YMCA성평등실현대책위 (3/8, 오후 2시, 종로YMCA 앞)
* 문 의 : 서울YMCA성평등실현대책위 (010-9328-7319, 이혜정 활동가)
- ⑦ 3·8 세계여성의 날 민우회 "나나나" 캠페인 - 한국여성민우회 (3/8 온라인 진행)
 - 자유로운 나를 되찾자, 자유로운 나!
 - 함께하는 나를 만들자, 함께하는 나!
 - 파도의 시작이 되는 나를 만들자, 파도타는 나!
 - 하나! 하이힐 신지 않기
 - 둘! 브래지어 하지 않기
 - 셋! 남의 눈을 의식한 화장하지 않기
 - 넷! 작은 기부로 큰 나눔 만들기
 - 다섯! 주변인에게 1인 1단체 가입 권유하기
 - 여섯! 문자파도타기
 - 일곱! 대화명 새로달기
 - 여덟! 3시 8분! '여성의 날' 검색어 1위 만들기
 - * 문의 : 한국여성민우회 홍지명 활동가 (02-737-5763)

대중캠페인 | 여성의날 축하해요!

* 서울지하철공사의 새이름 '서울메트로'

지하철 예술무대와 함께하는 3·8 세계여성의 날 축하공연

· 3월 한달동안 사당, 충무로, 동대문 운동장, 을지로입구역 등 서울 시내 주요 지하철역 12곳에서 '3·8 세계여성의 날'을 축하하기 위한 다양한 문화공연이 진행됩니다.

* 직영상 대중여성캠페인이 진행될 을지로입구역 공연일정은 첨부합니다.

월/일	공연시간	공연팀	공연내용	공연기획사
3/1(수)	14:00	황공주	댄스	레일아트
3/3(금)	18:00	하모니캣츠	하모니카 연주	레일아트
3/4(토)	18:00	공소아	포크	레일아트
3/10(금)	18:00	하모니캣츠	하모니카 연주	레일아트
3/17(금)	18:00	하모니캣츠	하모니카 연주	레일아트
3/18(토)	12:00	분당섹스폰트호화	섹스폰 연주	레일아트
3/19(토)	16:00	김진태	포크	이일공
3/24(금)	18:00	하모니캣츠	하모니카 연주	레일아트
3/28(토)	17:00	공소아	포크	레일아트
3/29(수)	16:00	김진태	포크	이일공
3/31(금)	18:00	하모니캣츠	하모니카 연주	레일아트

* 3·8세계여성의 날을 축하하는 장미꽃을 여성들에게!

· 중국이나 구 소련방의 여러 나라에서는 3월 8일, 여성들에게 장미꽃을 주는 문화가 일반화 되어있다. 지난 2005년 겨울 화살피해를 입은 농가도 후원하고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도 축하하기 위해, 농협전북본부에서 부안지역 장미농가의 꽃을 구입해서, 대회 참가자들에게 축하한다는 의미로 장미꽃을 전시한다.

* 한국에서 수출되는 장미는 57%가 전북지역에서 재배되고 있고, 지난해 최초로 전북지역 농가들의 판매가 증가했다.

* 3·8세계여성의 날을 건강하게!

여성들을 위한 자궁경부암 무료검진센터 운영

· 온·오프에서 100명을 모집하여, 연결된 병원에 가서 자궁경부암 무료검진을 실시한다.
· 이 행사는 여의사회회 소속의 여성과사들의 도움으로 진행되었으며, 이후 전국 5개 광역시를 중심으로 실시된다.

* [시민사회단체들의 성평등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감사명크 연계

· 기념주간 및 3월 한달동안 성평등 의식 향상을 위해 시민단체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성평등 교육 감사명크
·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하는 여성활동가들을 위한 단체 자체적으로 기념 프로그램을 진행

* 아름다운재단 3·8세계여성의 날 기념 문화나눔

· 옥 뮤지컬 '지하철 1호선' / 회당 20명, 총 100명 / 학정그린소극장 / 3월 2일(목)
· 난타 / 회당 20명, 총 100명 / 정동난타전용극장
· '도깨비스쿨' / 회당 30명, 총 150명 / 도깨비스쿨 전용극장 / 3월 2일 ~ 3월 31일
· 송송환의 교육극시리즈 '명작동화 그림자극' / 회당 40명 / 웅진씽크빅아트홀 / 3월 1일 ~ 3월 31일
· 어린이 경제뮤지컬 '재크와 요술재금' / 회당 20명, 총 70명 / 명동 펍키하우스 / 3월 1일 ~ 3월 31일

· 어린이 성장뮤지컬 '노을의 소원' / 회당 20명, 총 70명 / 스타시티아트홀 / 3월 7일(토) 오후 4시
· 뮤지컬 '사람은 비를 타고' / 회당 20명, 총 40명 / 대학로 인콰아트홀 1관 / 3월 1일(수) 오후 7시 30분, 3월 2일(목) 오후 7시 30분
·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뮤지컬 '노노야야기' / 회당 25명 / 대학로 상상나눔씨어터 / 3월 18일 ~ 3월 31일
· 가족연극 '하락이야기' / 20명 / 경기안산문화 예술의전당, 달맞이극장 / 3월 31일(토) 오전 11시
· 벅스(주) 3개월 이용권 / 300명
· 선정 후 벅스에서 인증번호 인증 후 3개월간 자유롭게 사용가능

* 한국여성재단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문화나눔

· 서울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바르토크 공연 / 티켓매수: 100장 / 2005년 3월 3일(금) 오후 8시
· 뮤지컬 '천사' / 티켓매수: 총 270장 / 2005년 3월 8일~12일 중
· * 3월 8일은 기부된 티켓을 여성단체실무자에게 전파식 배분
· 손숙의 보코콘서트 '사랑아 웃어라' / 티켓매수: 총 350장 / 2005년 3월 1일 ~ 3월 5일 사이
· * 공통: 3·8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여 좌석의 70%는 여성에게 배분

사이버

· 독립된 사이트 구축 (<http://38women.women21.or.kr>)
· 배너달기 캠페인 진행

홍보활동

· 지면 / 방송 / 잡지 / 대학 등 다양한 공간의 여성대회 홍보활동
· KBS, MBC, SBS 등 방송사를 통해 3·8 여성의 날 기념주간에 여성관련 방송 프로그램 집중 배치 요청 활동
· 3·8세계여성의 날 기념 특집프로그램 출연 예정.

기타

· 프레스 코드: 여성대회 상징색인 보라입니다. 보라색이 들어있는 복도리, 장갑, 등 모두 모두 좋습니다. 당일 보라색이 들어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참여하세요.



플뿌리 여성운동가의 전형을 보여준
학교급식 전국네트워크 상임대표

배옥병

학교급식 개선을 위한 지역별 조직을 전국적으로 조직화한 지도자

2001년도 전국교보네트워크 활동에 이어 시작된 학교급식 개선 운동은 향후 우리사회를 짊어질 아이들의 건강과 생명과 성장에 직결된 문제로서, 어마어마한 교육비용이 투자됨에도 불구하고 급식의 낮은 질과 위탁업체의 비리, 비용부담의 주체인 학부모 참여 통로가 없는 점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에 배옥병은 그간의 학부모 운동을 토대로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를 결성하고, 2002년 9월 총 99개 단체에 제안하여 <학교급식법 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를 출범시켰다. 연대회의는 안전한 우리농산물 사용, 정부 직영급식소 운영, 무상급식 실시의 3대 핵심사항을 요구하며 급식개선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켰다. 이후 연대회의와 지역의 조례제정운동본부가 통합되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2003년 11월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이하 '국민운동본부')를 출범하여 지금까지 상임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의 자발적 조례제정운동을 전국적으로 연계·지원·통합해온 학교급식운동은 학부모 단체와 전교조, 시민사회 단체는 물론 지역학교 운영위원 협의회, 농민회, 노동조합, 그리고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정당의 참여까지 포괄함으로써, 지역과 부문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운동의 모범이 되었다. 무엇보다 이 운동의 가장 큰 특징은 조례제정이라는 제도화 운동에만 한정하지 않고 학교운영위원회 내에 급식소위 구성을 요구하며 급식업체 재선정과 급식 모니터링에 학부모들을 참여시키는 등 실질적 변화를 추동해왔다는 점이다. 또한 무상급식을 통한 교육의 공공성 확보, 우리 농산물 사용을 통한 농업회생, 대부분 여성인 일용직 영양사들의 정규직화를 위한 무정 등 교육의 변화를 통해 우리 사회 전체의 양극화 해소까지 운동을 확장·발전시켰다는 데 그 의의가 크다.

지난 4년여의 학교급식운동은 전북(2005년 9월 WTO 협정에 위반 된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았음)을 제외한 전국 15개 광역자치단체와 106여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에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최근, 조례에 명시된 '우리 농산물 사용' 조항이 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급식조례를 제정한 지자체 중 4군데가 대법원에 제소되면서 조례제정운동이 위기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으나, 우리농산물로 학교급식을 지원하고 있는 지역이 8곳이다. 실제로 미국과 일본 등은 아동들

에게 적절한 영양 공급 및 국내 농산물 수급안정 등을 이유로 학교 급식에 자국 농산물 사용을 명시하고 있는 점을 들어, 현재 학교급식법 개정운동을 진행 하고 있다.

학부모를 조직하여 학교와 지역사회의 민주화를 일궈낸 여성

97년까지 서울여성노동자회 회장으로 활동하던 배옥병은, 여성들이 일상에서 부딪치는 문제를 스스로 깨닫고 해결하는 힘을 갖출 때만이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플뿌리 지역운동에 뛰어들게 된다. 우선 자신이 학부모로서 느낀 문제의식을 가지고 학부모회와 학교운영위원회에 적극 참여하여 학교급식 직영전환 및 급식 모니터,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학교도서관 운영, 교복 공동구매, 졸업앨범 공개입찰 등을 성사시키고, 이를 통하여 학부모들을 조직하고 학교의 민주화와 학교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러한 학부모운동을 토대로 구로초등학교 봉화로 안전 문제를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발의로 해결하는 한편, 구로지역 초등학교 운영위원회 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교육청별로 운영되는 학교장회와에서 학부모 부담으로 이뤄지는 사립에 대한 가이드라인(예- 급식비, 앨범 제작 등)을 정하여 보급함으로써, 서울 시내의 여러 학교들에서 특정 업체들이 독점적으로 누리던 부당이익들을 더 이상은 취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노동운동의 최전선에 서 있던 여성노동운동가에서 주민운동가로 변신한 배옥병은 학부모와 교사의 관계를 일방통행적인 관계에서 상호 협력하는 동반자 관계로, 학부모회와 정치세력과의 정파적이고 종속적인 관계를 주체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로 변화시켜 놓았다(남부교육시민연대). 그 속에서 학부모들의 의식이 크게 변화하였고, 이를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를 참여와 나눔의 공동체로 변모시켰으며 진정한 플뿌리주민운동의 모델을 제시하였다.

여성노동자의 권익운동에 헌신한 여성

1975년 주식회사 '서봉'에 입사, 78년 우연히 야학활동을 시작하면서 노동운동에 눈을 뜨게 되었다. 이후 1980년 여성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하며 농성을 시작한다. 농성을 통해 함께 투쟁했던 여성노동자들의 지지 속에서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활동하였으며, 농성을 주도한 혐의로 1981년 6월 [국가보위법관

한국여성대회



한복벌조치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다.

1년 6개월 만에 출소한 뒤 '서풍'에서 해고되자, 80년대 최초의 공개노동운동 조직인 '노동자복지협의회'를 창립하는 데 기여하였고, 이를 시작으로 1997년 서울여성노동자회 회장으로 활동하기까지 지난 20여년간 여성노동자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였다.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끈기와 인내로 자기개발을 성취한 여성

충남 청양의 칠갑산 자락에서 자란 배옥병의 소녀시절의 꿈은 '현모양처'였다. 술을 좋아하시는 아버지 대신 어머니를 도와 논으로 밭으로 일하러 가면서 술을 먹지 않는 남자를 만나 현모양처로 행복하게 살리라 다짐했었다. 5남매의 장녀인 배옥병은 경제활동을 위해 초등학교 졸업 후 중학교 진학을 포기

하고, 4년 동안 집을 비운 어머니 대신 동생들에게 엄마노릇을 해야만 했다. 19살이 되던 해 명절, 여공을 뽑기 위해 내려온 관광버스를 타고 돈을 벌러 서울로 올라와 주식회사 '서풍'에 입사했다. 야학에서 만난 대학생들을 통해 노동자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서풍' 노조위원장을 지내면서 감옥에 가는 등 고초를 겪었지만, 배옥병의 노동운동에 대한 자기확신은 너무나도 분명하였다. 현모양처가 꿈이었던 소녀 배옥병은 여성노동운동의 투사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이다.

20여년 동안 한는 한번 팔지 않고 노동운동을 해 온 배옥병은 2001년 7개월 만에 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을 검정고시로 통과하였고, 2002년 늦깎이 대학생으로 성공회대 사회과학부에 입학하여 올해 졸업했다.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기 삶의 주인으로서 꾸준히 자신을 성장시켜 온 배옥병의 실천적 삶은 자신의 변화를 통해 주변 이웃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켜 온 여성운동가의 전형으로 평가할 만하다.

주요 경력 History

1975 ~ 1981	주식회사 '서풍' 근무
1980 ~ 1981	'서풍' 노동조합 위원장
1981 ~ 1982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구속
1983 ~ 1986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창립준비위원, 교무부장
1987 ~ 1994	한국여성노동자회 창립준비위원, 조직부장, 부회장
1995 ~ 1997	서울여성노동자회 회장
1995 ~ 1997	다르릉 자매상담실 대표
1995 ~ 1997	한국여성단체연합 임원(회계)
1998 ~ 2001	구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겸 운영위원장
2003 ~ 2004	구로중학교 학부모회장 겸 운영위원장
1998 ~ 2004	구로초등학교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위원회 위원장(전)
2000 ~ 2005	한국여성단체연합 지역운동센터 운영위원
2001	고입 및 대입 검정고시 합격
2002 ~ 2006	성공회대학교 사회학과 입학 및 졸업
현재	서울여성의회전화 전문위원 남부교육시민연대 공동대표 서울교육혁신연대 공동대표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운영위원 참교육학부모회 자문위원 구로구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은동본부 상임대표 서울시 학교급식 조례제정은동본부 상임대표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상임대표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어린이 건강과 지속가능한 사회 정책연구위원 서울시교육청급식위원회 위원





호주제 폐지운동의 전사- 평등가족 홍보대사 김미화·권혜효

2001년, 2002년 각각 여성연합 제2기 평등가족 홍보대사로 임명되어 2005년 호주제가 폐지될 때까지 길거리 캠페인, 집회 및 시위, 기자회견 등에 적극 참여했고, 호주제 관련 행사의 사회자로 명활하였다. 호주제 폐지 이슈는 사회적으로 찬반여론이 팽팽한 매우 민감한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인으로서의 쉽지 않은 결단을 통해 '호주제 폐지운동의 현장에는 그들이 있다'라는 신화를 만들어낸 정도로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호주제폐지에 대한 긍정적 여론을 확산시켰다. 특히 김미화씨는 개인의 아픈 가족사를 드러냄으로써 호주제로 인한 피해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데 기여했고, 권혜효씨는 분석적 시각과 폭넓은 지식을 바탕으로 수많은 교육과 대학 강연, TV 찬반토론의 패널로 참석하는 등 열정과 헌신으로 운동의 현장에 적극 참여하여, 호주제 폐지와 평등가족문화 실현에 기여했다.



40세 조기직급정년의 간접차별 판례를 이끌어 낸 정영임씨

정영임씨는 입사 당시 여성이라는 이유로 동일자격의 남성보다 하위직급에 채용되었고, 성차별적인 승진체제로 인해 무려 15년 이후야 남성들이 채용 당시 배치되는 5직급으로 승진하였다. 이후 5직급이 된지 1년 여 만에 40세 직급정년으로 퇴직을 맞는 이중, 삼중의 부당한 차별을 받았다. 이에 정영임씨는 2001년 12월, 성차별적인 부당퇴직 이후 노동위원회와 법원을 오가며 4년 여간 40세 조기직급정년의 부당성과 성차별성에 대해서 문제제기 하였다.

연이은 패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항소를 진행하여 2003년 1월, 드디어 고등법원에서 '15년 만에 5직급으로 승진하여 40세 정년으로 퇴직'한 것은 결과적으로 여성근로자인 원고의 승진 및 정년을 차별 한 것이라는 결과적 차별(간접차별)을 인정받았다. 1989년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결과적 차별(간접차별)을 규정한 이후, 결과적 차별(간접차별)을 인정받은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법원의 판결은 결과적 차별(간접차별)을 주고 있는 수많은 여성노동자들에게 큰 희망을 주는 것이었다. 이러한 값진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결과적 차별을 인정한 사례가 단 한 건도 존재하지 않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팔지 않은 4년 여간 소송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해온 정영임의 노력 때문이었다. 지속적인 패소와 회사의 회유 속에서도 차별과 부당함에 당당히 맞서는 정영임씨의 의지가 없었더라면 이러한 값진 결과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광양성매매사건, 광주송정동 성매매사건을 성평등 관점으로 판결한 광주지방법원 선재성 전 지원장

광주지방법원 선재성 전지원장은 광양성매매사건(2005년 7월), 광주 송정동 화재사건(2006년 11월)에 대해 과거의 송방방이 판례와는 다르게 강력한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성매매범죄에 대한 처벌의지를 강력히 보여주었다. 광양 성매매사건은 업주의 선불금 독촉과 협박을 견디지 못한 여성이 을 목자살한 사건으로 업주의 책임회피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2년 실형을 내렸다. 광주 송정동 화재사건은 송정동 성매매집결지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2명의 성매매 피해여성이 사망한 사건으로 서희상의 업주에게 실형 4년 3천만원의 벌금형, 실제업주는 2년 실형에 5천만원의 벌금을 처벌함으로써 성매매 관련법에 대한 처벌이 대부분 집행유예나 소액의 벌금형에 그쳤던 전례와 달리 판결하였다.

이 같은 판결은 성매매 피해 여성의 인권보호와 성매매방지법의 실효성 있는 법치용에 대한 판사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그동안 국가가 성매매를 불법행위로 규정하였으나 사법기관의 처벌이 미약하여 성매매여성이 법의 보호를 받는 것에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성매매방지법의 실효성 있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는 판결을 내려내서 성매매여성의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건강한 사회가 되기를 희망한다. 또한 선재성 전지원장은 재직기간 3년 동안 성폭력가해자(청소년), 가정폭력가해자, 성구매자 및 성매매 알선자의 처벌에 있어서도 단순처벌에 그치지 않고, 여성단체와 연대하여 교정교육을 실시하였다. 성구매자 및 알선자 교정교육(일명 존슨스쿨)을 전국에서 최초로 실시함으로써 타기관에 모범이 되었다.



무노조경영이념으로 수많은 여성노동자들을 탄압한 신세계이마트 용인수지지점

신세계이마트는 무노조 경영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임을 강조하여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보장하지 않고, 노동조합 가입 조합원을 일주일 만에 조합에서 탈퇴시키고 남아있던 조합원들을 강제 계약해지 했다. 특히 노동조합에 가입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을 노조에서 탈퇴시키기 위해 근무시간 내내 일도 안 시키고 7~8시간씩 감당상태에서 탈퇴서를 작성할 것을 강요하고, 발의실, 식당 화장실까지 미행 하는 등 여성노동자들의 인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또한 경기지방법노동위원회에서 지난 2005년 5월 16일에 '신세계이마트'의 단체교섭거부는 부당노동행위이므로 상실히 교섭하라 는 명령을 내렸음에도 전혀 지키지 않는 등 불법행위마저 자행하고 있다.



여교사에게 술파르기 강요가 성희롱이 아니라고 판결한(그림) 서울고등법원 특별11부

서울고등법원 특별 11부는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가 '회식자리 술파르기 강요는 성희롱이 아니다' 라고 판단한 서울행정법원(1심) 판결을 취소해 달라는 항소심 청구를 기각했다. 1심 판결은 성희롱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가 느끼는 성적 굴욕감 또는 불쾌감은 피해자의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의 성적 의도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최종적으로 가해자의 성적 언동이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되는가'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서 피해자의 관점을 교묘하게 거부하면서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성희롱 결정 취지를 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특별 11부는 이러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함으로써 성희롱 근거법령을 도의시키고 가해자의 성적 의도를 중심으로 성희롱 결정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오류를 범했다. 이는 최근 술자리에서 일어나는 성희롱 문제를 남성의 시각에서 지나치게 관용하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전국민적 성희롱 근절 의지를 거스르고 있다.



위헌인 '군가산점 제도'를 부활시키려 하고 피감기관으로부터 항응을 제공받은 한나라당 주성영의원

주성영 의원은 2005년 3월 28일 1998년 헌법재판소가 전원 일치로 위헌 심판한 '군가산점 제도'를 부활시키는 '제대군인지원여관법'을 제출했다. 주성영 의원은 헌법 재판소의 위헌판결이 군가산점제도 자체를 반대한 것은 아니라며 과목별 만점의 5% 이내의 가점비율을 3% 이내로 줄이는 법률안을 제출하고, 오히려 군가산점제의 부활을 성명등을 위한 조치로 호도하여 헌법재판소의 판결정신과 성명등의 개념을 사회적으로 왜곡시키면서 보수적 남성들의 여론을 부추기고자 하였다. 이는 여성 및 장애인의 평등권과 공무원임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또 다시 침해하려는 시도이자,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인해 한 단계 발전한 우리사회의 성평등 의식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반역사적 행위였다. 또한 국회의원으로서 2005년 국정감사기간 중 법사위 국회의원 일부와 함께 피감기관인 대구 경찰청 검사들로부터 항응과 접대를 제공받고 화려적인 연사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국회의원으로서 윤리규범을 명백히 어기는 행태를 보였다.

출연진



사전축하행사 사회
김금옥 | 여성연합 사무처장



본대회 사회
원혜효 | 배우



본대회 사회
최광기 | 전문사회자



돼지꿈 | 대전예민회 연극모임



날개짓 |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후원자모임



들꽃피는마을



Chapter2



미아



고양여성민우회 & 동물패 단비

98주기 3·8세계여성주간 기념 제22회
한국여성대회



연출팀

- 연출 박진창아 (여성문화예술기획 사무처장)
- 부대감독 문홍식 (STAGEWORKS)
- 미술감독 안현숙 (설치미술가)
- 기획 채리미영 (여성연합 기획부장) / 김현아 (여성연합 인턴간사)
- 영상 사포 (다큐멘터리 감독)
- 조병감독 김영빈 (STAGEWORKS)
- 음향감독 전광표 (STAGEWORKS)
- 퍼포먼스 자각몽 (노소영, 양현주, 서주영, 최찬미, 황현정)

감사합니다.

- 3·8 세계여성주간 제22회 한국여성대회를 축하하기 위해 가수 마야님이 끼나눔을 해주셨습니다.
- (주) 미사에서 한국여성대회 참가자들을 위해 화장품(에센스)을 기부하셨습니다.
- 농협전북지역본부에서 한국여성대회 참가자들을 위해 장미꽃을 기부하셨습니다.

Design by Keunsaram design
Tel. 02-756-9430



2005년도 고객만족도 1위
(정부산하기관 산업진흥분야)

자원이 순환되는 아름다운 미래, 한국환경자원공사가 열어갑니다

자원순환 사회 구축을 위해 재활용 산업을 선도해 온 한국환경자원공사—
한국환경자원공사는 국민의 신뢰 속에 20여년간 쌓아온 재활용 관련 노하우를 바탕으로
더 큰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노력과 창조적 정신으로
21세기 환경선진국 건설에 앞장서겠습니다.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



폐기물적립처리
시스템



사업장폐기물
감량화제도



자원화
시설 설치·운영



재활용산업 창업
/ 육성 자금유자



창업/기술
지도



공공재활용기반
시설 설치지원



한국환경자원공사

www.envico.or.kr



보장은 **든든**하게! 혜택은 **다양**하게! 이제 국민건강보험 **하나면 충분**합니다!



“

여러분이 내주신
건강보험료!
치료비 부담을
절감하는 데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



2006년 1월부터 국민건강보험이 더 **든든**해졌습니다

- 6세 미만 입원 어린이 본인부담금을 전액 면제하였습니다
- 간/심장/폐/췌장 등 장기이식수술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암환자의 치료비 경감 혜택이 더욱 커집니다

항 목	경감 전	경감 후
비흡연 여성 폐암환자가 이례사를 엮을 경우(한달차)	196만원	19만6천원
위암환자가 소량(22mg)의 탁술을 맛을 경우	133만원	13만3천원
전립선 육방암환자가 탁스텔과 니벨반을 같이 쓸 경우	178만원	17만8천원



국민건강보험이 **환자 부담을 대폭** 줄이겠습니다

- 2005년에는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의 치료비 부담률을 10%로 대폭 낮췄습니다
- 올해부터는 입원환자 식대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 암, 심장·뇌혈관질환에 대한 초음파, PET (단 한바의 촬영으로 전신의 암을 진단할 수 있는 양전자 단층촬영)도 건강보험 적용 예정입니다
- 내년부터는 입원환자의 차액병실료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과 신뢰

...
 근로자의 행복과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이 함께 합니다

여성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

영유아보육시설 설치운영

- ▶ 대상 : 근로자 및 일반주민의 자녀 만0세부터 취학전 아동 (방과후반 : 만12세까지)
- ▶ 운영지역 : 창원, 안산, 서울모아래, 청주수안동, 대전, 대구, 동해, 광양, 수원, 천안, 정읍, 인천, 경주, 부산, 포항, 부천, 군포, 조치원, 울산, 진해, 인천남동, 군산, 제주, 고양 등 전국 24개소
- ▶ 월보육료 : 무 · 공립 보육시설에 준함

직장보육시설 설치비용 융자 및 지원

- ▶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
- ▶ 용도 : 소속 근로자를 위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또는 시설을 전환(개보수)하거나 유구비용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
- ▶ 융자금용 : 시설건립비, 시설매입비, 시설임차비, 시설개보수비, 시설전환비 최고 5억 (중소기업 연리 1%, 대기업 등 연리 2%, 금액에 따라 5년까지 5년 분할상환)
- ▶ 보조한도 : 보육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전환 또는 유구비용 구입에 필요한 실제 소요비용의 50% ~ 80%를 시설전환비용 1억원, 유구비용비 3,5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실직여성가장 창업지원

- ▶ 대상 : 배우자의 사망 또는 심신장애 등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된 경우나 이혼 등으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실직여성가장
- ※ 신청일 현재 만 20세 미만 또는 만 60세 이상인 자
- ▶ 지원내용
 - 본인 희망 점포(전세권설정 가능한 점포)를 공단이 직접 임차하여 이를 대여
 - 1억원 이내의 점포를 1~2년 단위 계약으로 최장 6년까지 연장 가능
 - 점포지원금의 연리 4.5%에 해당하는 이자를 매월 공단에 균등 분할 납부
 - ※ 점포지원금에 대한 채권확보가 가능한 점포(감정평가사 등에 의한 평가금액의 60%를 건물가액으로 인정) 월세점포의 경우 월세 및 관리비 포함 120만원 이내(본인부담)의 점포만 지원가능

근로여성임대아파트

- ▶ 입주 대상 : 미혼 및 기혼 독신 여성근로자
- ▶ 이용가능지역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부천, 춘천 6개지역
- ▶ 세대당 입주인원 : 2~3명(서울·부천 3명, 기타 지역은 2명)
- ▶ 입주 우선 순위 : 저임금근로자, 생산직근로자, 신규입주신청자 순
- ▶ 세대당 임대료 : 보증금 105,000원 월임대료 52,500원 관리비 42,000원
- ▶ 임대기간 : 입주일로부터 2년(1회 연장 신청가능)

자세한 사항은 전화(1588-0075) 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welco.co.kr)를 참조하세요

근로복지공단

150-981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94-267번지
 TEL : 1588-0075 / Mail : master@welco.or.kr





ab.f.z

www.abfz.co.kr

세상에 빛을 이웃에 사랑을

빛으로 밝은 세상을 사랑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한국전력은 이웃사랑, 문화사랑, 환경사랑을 통해
밝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한국전력

www.kepco.co.kr

별을 수놓는 사람들-KOGAS

반짝임 하나, 반짝임 두울, 반짝임 세엿...
천연가스가 우리생활에 다가올수록
밤하늘의 반짝임이 늘어납니다.
깨끗한 천연가스, 깨끗한 기업-KOGAS



한국가스공사
<http://www.kogas.or.kr>



너겟도 이제 집에서 해주세요!

요즘 내 별명은

너겟아줌마

영양가 높지, 콜레스테롤 낮지

먹기 좋게 보기 좋게 차림

하림치킨너겟 ^{U2}

머스타드 소스와 함께 차려내 주면

식구들 감탄이 절로절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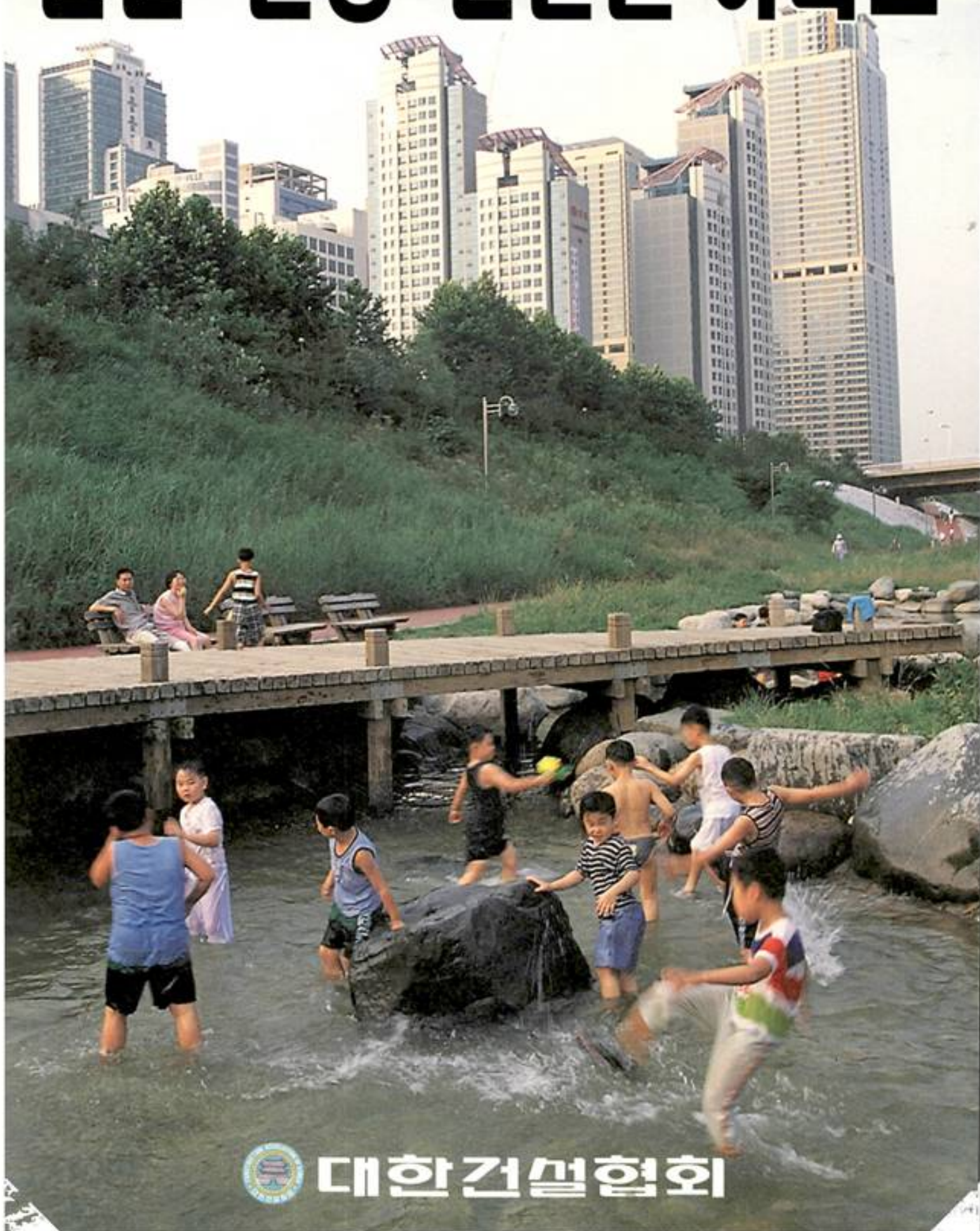
하림이 만드니까 안심! 엄마가 해주니까 안심!

요즘 아이들 너겟 참 좋아하죠?
하지만 어떤 닭고기로 만들었는지 알 수 없다면
맛도 위생도 반박해 믿을 수 없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이니만큼 너겟도
어떤 닭고기로 만들었는지 꼭 따져 보십시오.
하림치킨너겟은 100% 국산 닭고기살로 만듭니다.

치킨너겟
Chicken Nuggets



인간·환경·건설을 하나로



대한건설협회



눈높이, 한국산업의 브랜드 파워 7년 연속 1위

교육의 프로 - 대교



대교는 SAFE KIDS Korea와 함께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한국경영인협회
2005년 대한민국 최고기업대상 서비스부문 대상 수상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선정
2005년 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 1위

프로는 '사랑부터 가르쳐야한다' 고 생각합니다



눈높이 사랑봉사단으로 큰 사랑 큰 교육을 펼쳐 가고 있습니다

몸이 불편한 아이에게 희망을, 마음이 아픈 아이에게는 사랑을! 큰 사랑으로 가르치는 큰 교육만이 대교가 생각하는 참교육입니다



대교의 1만여 눈높이 선생님들께서 눈높이 사랑, 눈높이 교육의 이념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자폐아를 세상 밖으로

자폐아동 및 특수장애아 700여명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수아 교육은 치료와 재활에 도움을 주는 꾸준하고 지속적인 아이들 발굴뿐만 아니라 자폐아동 교육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캠페인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생활 시안연합과 공동으로 Safe Kids Korea 세이프키즈를 설립하였습니다. 현재는 전국 500여개 지점에서 5,000여명의 어린이 안전지도자와 함께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Life KT



Life is wonderfull

출러가는 구름 한 조각에도, 사랑하는 이의 말 한 마디에도, 두근두근 가슴이 떨려옵니다. 설렘과 놀라움, 기쁨과 감동으로 가득한 하루하루. KT가 당신의 삶을 원더로 가득 채워 드리겠습니다. Life is wonderfull,KT

KT

30대여성
80%
미백을 위해
이것저것 바꿔봤다



기미·잡티 집중관리

이번만큼은 후회없이 딥화이트닝 아이오페 화이트젠 딥화이트닝 인텐시브

■기미·잡티, 종다는 건 다 써 봐도 왜 자꾸 눈에 띄까?

기미·잡티는 불필요하게 많이 생성된 멜라닌이 피부세포층 겹겹이 쌓여있는 상태. 따라서 화이트닝은 겹에서 치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피부 속을 깨끗이 바꿔주는 딥화이트닝이어야 한다. 30대 여성의 무려 80%가 미백화장품을 이것저것 바꿔봤다는데, 당신도 미백 화장품을 몇 번씩 교체해 본 적이 있다면, 피부 속 깊은 멜라닌까지 도달해 기미·잡티를 집중관리해주는 딥화이트닝을 시작해야 할 때다.

Q 미백/화이트닝 제품 사용 후 효과가 입증된가요?



(한국여성 30~39세 여보 중 미백기능성 제품 사용경험자 400명)

■깊은 피부 속 멜라닌을 없애는 엘라스토퍼-아이오페 딥화이트닝 인텐시브

“엘라스토퍼”는 모공 1/100 크기인 딥화이트닝 캡슐, 피부 깊이 스며들어 멜라닌에 도달해서 타지는 아이오페만의 집중화이트닝 시스템이다. 세모에 미리 화이트세라민을 보내 기미·잡티를 억제하는 물다치메딧추출물과 피부 속에서 비타민C로 변해 미백작용을 하는 비타민C유도체 등 미백효능성분이 엘라스토퍼를 통해 깊숙이 전달되므로, 보다 효과적인 딥화이트닝이 가능하다. 기존제품 대비 전체 얼굴톤 밝기 100% 증가, 기미·잡티 부위의 색소침착 개선 19% 증가 등의 뚜렷한 변화가 더 참여한 딥화이트닝의 효과를 증명한다. 여성들의 끝없는 하얀 욕망을 위해 태어난 아이오페 딥화이트닝 인텐시브- 한 달 이상 꾸준히 사용하면 기미·잡티가 멀어지는 깨끗한 기분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눈에 보이는 피부과학 -

IOPE

우림필유에 살고 있지 않아도 당신은 우림건설을 잘 알고 계십니다

펑키펑키

위트

난타

버라이어티 모놀로그

점프

유린타운

우리 민요의 밤

집이 아니더라도 우림건설을 만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당신이 즐기는 다양한 문화생활 속에 우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림청담씨어터를 통해 강남에도 공연문화를 자리잡게 하고
남도민요 후원을 통해 우리 것을 지키는 등
당신의 문화생활 안에 우림이 항상 함께 하고 있습니다

문화로 먼저 만납니다-

 **woolim**
우림건설

고객 수익이 쑥 쑥!

증권업협회 제09-602 (2006.10.20)



대신의 믿음경영 고객과 함께합니다

고객의 수익이 높아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고객의 꿈이 높아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대신만의 믿음경영-

항상 고객이 먼저입니다

 대신증권

생각해보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For happiness

짜꿍도 나를
좋아하는 것 같다



싸이생활백서

방문자수와 매력지수를 올리기 위한 가상의 노력들,
달려진 미니홈피가 말해주는 친구의 속마음,
시험 기간만 되면 날 유혹하는 미니홈피 ...

우리가 공감하는 싸이월드만의 이야기.

싸이생활백서 04.

공주의 품위유지

방문자수가 한 자리 대에 머무른 자신의 홈페이지를
로그아웃한 상태로 클릭하려
방문자 수를 올리는 일



cyworld

싸이생활백서 06.

이심전심

행복한 커플이었던 친구 미니홈피의
모든 메뉴가 닫히고 2주간 게시글 업로드
상태가 지속되면, 알리지 않아도
그 친구의 마음을 아는 현상
'깨졌구나?'



©ComixCafe

싸이생활백서 01.

북치고 장구치고

카인드, 예로틱 등의 지수를 올리기 위해
친구에게 도토리를 주고 스킨으로 되돌려 받는
매력지수 올리기 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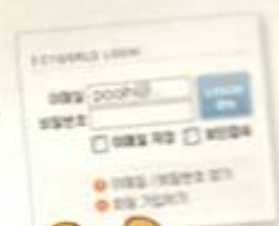


cyworld

싸이생활백서 11.

유혹

시험기간만 되면 싸이가
상하게 하고 싶어지는 현상
할아버지 미니홈피와 소통했던 일촌관리자
그 시기만 되면 유혹 신경이 쓰여
견딜 수 없어진다.



cyworld

cyworld

사이월드 - 싸이월드, 싸이월드

www.cyworld.com



바른 먹거리는 단순히 입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인성과 생활습관까지 좌우하는
산교육이라는 걸 알기에 -

오늘도 당
햄버거 집
한바탕 씨

안쓰럽지
물러설 수
풀무원이

당신.


Puln

바른먹거디

여성이기 못하고 여성이기억
하는 여성을 기록하고 여성을
기록하는 바로 이곳 성평등
서관여기
성평등
도서관
여기
여성이기 못하고 여성이기억
하는 여성을 기록하고 여성을
기록하는 바로 이곳 성평등
서관여기

이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

www.genderlibrary.or.kr



뉴욕이 자랑하는 것은
월스트리트가 아니라
센트럴파크의 숲입니다



뉴욕시민이 누리고 있는 생활권녹지는 우리의 3배-
그럼에도 그들은 지난 8년 동안 250만평의 공원을 더 늘렸습니다.



그 숲들이 세계에서 가장 바쁘고 변화한 도시
뉴욕에 사는 사람들에게 푸르른 휴식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과 자연을 이어주고, 건강한 도시문화의
원천이되는 숲. 우리나라의 도시에도 센트럴파크
같은 숲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숲을 키우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과 숲은 하나입니다